



지진으로 바뀐 천하의 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 용 우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pyunsama@gmail.com

오사카(大阪) 여행의 필수 코스 오사카 성. 우리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밑에서 하급무사로 출발하여 일본 전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하지만 그 정복욕을 다스리지 못해 임진왜란을 일으켜 한일 간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고, 그로 인해 권력기반이 약해져 권력이 이어지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비교적 왜소한 체구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표적인 지략가였다. 천혜의 요새인 다카마쓰(高松) 성을 공략할 때에 쓴 수공(水攻)은 당시 때맞추어 내린 폭우와 더불어 히데요시에게 승리를 선물하였다. 히데요시는 이후 부하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된다.

히데요시는 오사카 성을 구축하고, 은퇴 후의 본거지로 교토(京都)에 후시미(伏見) 성을 건조하게 한다. 히데요시가 교토 남쪽에 위치한 후시미를 거처로 낙점한 것은 오사카와 교토를 잇는 뱃길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온갖 장식을 다해 화려하게 꾸민 후미시 성이 완성된 것은 1596년의 일이었다.

당시 임진왜란은 이순신과 김시민을 비롯한 장수, 의병들의 활약과 명나라의 참전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히데요시와 명나라는 조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화를 추진하였고, 강화사절로 명나라의 심유경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이 심유경이 히데요시와 만난 장소가 바로 후시미 성이었다. 6월 25일에 회담을 마친 심유경은 7월 12일에는 이즈미(和泉)의 사카이(堺)에서 지진을 만났다. 7월 12일(윤달)에 발생한 게이초후시미대지진(慶長伏見大地震)은 교토 인근의 활성단층에서 저녁 12시에서 13일 새벽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M7~8 정도로 추정되는 지진은 진원이 지표면과 가까운 직하형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다. 심유경 일행 중에서도 하인 20여명이 희생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후시미 성에서 자고 있던 히데요시는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피신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후시미 성에는 명나라 사절을 맞이하기 위해 불러들였던 유녀들이 모여 있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유녀들은 비교적 허술한 성내 숙소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희생되었다고

한다. 당시 누구보다도 빨리 현장에 도착했던 호소카와 다다오키(細川忠興)는 유녀들의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히데요시에게 달려갔다.

일본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후시미 성은 주방 건물만 남기고 전부 무너졌다고 한다.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히데요시는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얼마나 급했는지 여자 옷을 입고 처첩 사이에 앉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조쿠센 기요마사키(続撰清正記)』, 성립연대 미상).

하루아침에 성을 잃은 히데요시의 분노는 애매한 곳으로 향했다. 자신이 교토의 호코지(方広寺) 절에 세웠던 거대 불상이 지진으로 한 쪽 팔이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 소리쳤다.

불상을 안치한 것은 국가 태평을 바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몸(불상)조차도 보존하지 못해서야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 (『지진잡산(地震雜纂)』, 1854년)

분노를 삭이지 못 한 히데요시는 불상을 향해 활을 쏘았다. 주위의 가신들은 히데요시의 행동에 벌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였다. 히데요시 사후 히데요시의 뒤를 이었던 아들 히데요리는 호코지 절과 불상을 화려하게 재건하게 된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히데요리는 세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절에 안치한 중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군신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의 「국가안강 군신풍락(國家安康 君臣豐樂)」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히데요리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받들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이 글귀가 자신의 이름「이에(家)」와 「야스(康)」를 찢어 놓았다며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켜 히데요리를 죽이게 된다. 결국 불상을 향해 화살을 당겼던 벌을 받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부처의 벌이 아니더라도, 히데요시 정권의 기반은 게이초후시미대지진으로 많이 약해지게 되었다. 교토와 후시미, 오사카에 이르는 광범위에 이르는 피해 복구보다는 자신의 성을 더욱 화려하게 짓는 데에 몰두한 것이다. 또한 다시 찾아올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죽은 시녀와 노비를 대신해 교토와 오사카, 후시미의 유녀들 중에서 용모가 뛰어난 이들을 모아 외국에서 올 사신들의 술시중을 준비하라」(『지진잡산』)고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선과의 오랜 전쟁으로 불만이 가득했던 무사들의 마음은 점점 히데요시를 떠나고 있었다. 옆친데 덩친격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이기적이었던 히데요시의 처사는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역사학자 이소다 미치후미(磯田道史)는 『천재를 통해 일본사를 다시 읽다(天災から日本史を読みなおす)』(中央公論社, 2014년)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후시미 지진 직후 도쿠가와 가신들 사이에서 히데요시를 급습해 살해하려는 계획이 논의되었던 흔적이 있다. (중략) 당시는 아직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와 같은 유력한 라이벌 무장들이 건재했다. 서투른 히데요시 암살계획은 오히려 도쿠가와 토벌의 빌미를 라이벌들에게 줄 수 있었다. (중략)(히데요시의) 병사를 기다려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편이 좋은 제략이었다. 지진이 일어난 밤, 여진으로 흔들리는 이에야스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이러한 꿈꿈이가 숨어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지진으로 흔들린 천하는 이에야스의 수중으로 굴러들어왔다.

이소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측근 사카이(酒井)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를 통해 위와 같이 추측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흔들린 민심과 무장들의 충성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히데요시의 천하를 종식시킨 것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순식간에 지지를 잃은 일본의 민주당 정권과 같은 모습이 1596년에도 있었던 것이다. (계속)